

씨앗 단계와 알로키 경험

소리를 초월한 곳에 사는 아버지는 너희들 모두를 소리와 더불어, 소리의 세계에서 소리 너머로 데려간다.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 밥다다가 온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두 그와 함께 돌아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냐? 그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방에 퍼져 있는 갖가지 종류의 확장, 즉, 나무의 모든 가지들이 씨앗 단계 안에 합쳐질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합쳐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회계정리를 할 때, 회계를 다 정리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쉬바(제로)라고 말해라!”라고 한다. 즉 그것은 빈디(한 점)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사이클과 칼파 나무에 대한 계정들을 참으로 많이 확장시켜 왔다. 너희들은 너희 계정의 가지들, 즉, 확장된 나무를 안다, 그렇지 않느냐? 몸의 계정의 가지가 있고, 육체의 관계의 가지, 육체의 여러 가지 모든 시설에 묶인 영혼으로서의 가지, 신봉의 길에서 구루에게 묶인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죄되는 행동에 묶인 가지, 카르마의 고통의 가지가 있다.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 한 점이 되고 있고 모든 확장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있다. 너희들은 모든 확장을 씨앗 안에 합쳤느냐, 아니면 아직도 약간 확장된 것이 남아 있느냐? 이 썩은 나무의 가지는 이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합류시대는 낡은 나무를 없애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 합류시대의 브라민들이여, 너희는 낡은 나무를 없앴느냐?

너희가 모든 일에 물을 줄 수는 없다. 너희가 씨앗에 물을 줄 때, 그것은 모든 잎들이 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84 생의 여러 가지 모든 계정의 나무를 없애야 한다. 너희들은 각 가지를 개별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늘 너희들은 몸을 의식하는 가지를 없애고, 내일은 육체의 관계들의 가지를 없앤다. 각 가지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끝내는 것으로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완성은 씨앗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불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그것들을 잘라 낼 필요도 없이 태우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너희가 그것들을 자르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무가 공기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얻기 때문이다. 나무가 크게 자라면 특별히 물을 줄 필요가 없다. 나무는 공기를 통해서 계속 자연적으로 자라고, 그것을 통해 똑바로 선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이 자란 썩은 나무에 지금 물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계속 자동적으로 자란다. 너희들은 너희가 노력을 함으로써, 오늘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가지를 끝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태우지 않는다면, 가지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은 자신에게나 아버지에게, 너희가 그것을 없앴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나왔느냐? 더 이상은 그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느냐?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가 그것을 잘라 버리기는 했지만, 태우지는 않았다. 불에 달구어진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사랑의 불 속에서 확장된 계정의 나무를 끝내라. 그리고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 몸과 관계와 몸의 시설들에 대한 확장이 모두 끝나면, 남는 것은 영혼, 한 점, 씨앗뿐일 것이다. 너희가 그런 씨앗의 형태인 한 점이 될 때, 씨앗인 아버지와 함께 소리를 초월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리를 초월해서 갈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은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확장을 끝냈느냐? 씨앗인 아버지는 오직 씨앗 단계에 있는 영혼들만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씨앗의 형태가 되었느냐? 항상 준비가 된 이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알로키의 경험을 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겠느냐?

너희가 첫째로 경험하게 될 것은, 너희가 걷고, 움직이고, 앉아 있거나 말하는 동안, 가지들이 갈라져 나오는 계정의 나무의 밑동인 너희의 몸이, 너희들, 즉 씨앗이며 영혼인 너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인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초연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영혼이 몸과 별개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가 아니라, 영혼인 너희가 너희의 몸과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마치 너희의 몸이 너희가 입고 있는 옷과는 완전히 별개이듯이, 마찬가지로 너희의 몸은 영혼인 너희의 의상이다. “영혼인 나는 이 의상을 입고 있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경험해야 한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육신의 의식이라는 의상을 취하고, 또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것에서 초연해져라. 즉, 육체의식으로부터 초연한 단계에 안정하여라. 너희들은 그런 초연함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이 의상을 취하느냐, 아니면 의상이 너희를 취하느냐? 어느 것이 살아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그러므로 첫째 징표는 초연함의 경험이다. 너희가 별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별개이다.

둘째 징표 또는 경험: 신봉자들, 영혼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진 이들, 신에 대한 지식을 약간 가진 이들이 빛의 한 점의 비전을 본다. 그 비전은 일시적인 것이다. 비전은 수행의 결실이 아니다. 그것은 드라마 속의 역할이고 축복이다.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도록 대등해진 영혼이 비전으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빛의 한 점인 영혼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비전을 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형태인 영혼은, 그가 결코 영혼의 비전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질적인 형태 안에 안정될 것이다. 실질적인 형태가 있을 때에는 비전이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실질적인 형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권위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단지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임을 경험한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 그저 영혼을 보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영혼은,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빛의 형태를 경험할 것이다.

셋째 경험: 대등한 영혼, 즉, 항상 준비된 영혼은 비록 물질 세계에서 육신 안에 들어 있지만 끊임없이 지각의 요가의 힘을 사용하여, 서틀 리전에서든 비물질의 영혼 세계에서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을 경험한다. 그는 1 초 만에 서틀 리전의 거주자가 되었다가, 1 초 만에 비물질 세계의 거주자가 되고, 1 초 만에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 행동하며 살고 있는 카르마 요기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틀 리전과 비물질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수 없이 많이 경험할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서틀 리전이나 비물질 세계로 갈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으로 가듯이, 그는 서틀 리전과 영혼 세계에 있는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너희는 일이 끝나도 여전히 직장에 앉아 있느냐? 마찬가지로 항상 준비된 영혼은 거듭 반복해서 자기가 저 집에 사는 사람임을 경험한다. 그것은 마치 집이 바로 그 사람 앞에 있는 것과 같다. 한 순간 그는 여기에 있고, 다음 순간 그는 거기에 있다. 그는 물질 세계의 방을 나가서, 비물질 세계의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른 경험들: 대등한 영혼들은 굴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날아가는 새라는 것을 경험하고 높이 날아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저 위의 고양된 단계에 안정되어 있음을 느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저 아래에 남기고, 중력을 벗어난 우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과학의 힘을 사용한다. 그들은 스스로가 매우 높고 끊임없이 아주 가볍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악덕의 끌어당김과 물질의 끌어당김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벗어나 날아가는 단계에 있는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더블라이트 임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날아감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이끌림을 초월하여 그들 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굴레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이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높이 날아가는 단계를 경험함을 의미하고, 날아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걷고 움직이는 동안 너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점인 아버지와 함께 날고 있고, 너희가 한 점이며 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대등한 영혼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것을 명료하게 경험할 것이다. 경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신성한 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 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록 많은 확장이 있다해도, 바바가 너희에게 말해 준 몇 가지의 핵심적인 징표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었느냐, 즉, 너희들은 경험의 화신이 되었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가 남아 있다고 말할 것이냐? 너희들은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봉사에 너무 바빠져서 고향조차도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은 영혼들이 해방과 해방된 삶의 유산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너희가 봉사를 할 때에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봉사에서 너희의 단계가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봉사를 확장하는 동안 절대로 핵심의 경험, 즉, 씨앗 단계의 경험을 잊지 말아라. 확장 속에 넋을 잃지 말아라. 확장을 하는 동안 핵심 단계에 안정하고, 또한 남들도 핵심의 형태를 경험하게 해 주어라. 이해가 되었느냐? अच्छा.

끊임없이 영혼의 실질적인 형태인 경험의 형상들에게, 모든 잔고의 나무를 없애고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 이들에게, 한 점의 형태에 안정하고 끊임없이 점인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는 이들에게, 한 순간은 카르마 요기가 되고, 한 순간은 서틀 리전의 거주자가 되고, 한 순간은 비물질 세계의 거주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날아가는 단계를 경험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하고 항상 준비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인사를 보낸다.

밥다다가 그룹을 만나심: (편집과 구자라트 지구)

1. 마야의 그늘로부터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보호의 장막 아래에 머물러라.

너희들은 아버지를 기억함의 보호의 장막이 끊임없이 너희 위에 드리워짐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기억의 보호의 장막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이 보호의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끊임없이 보호의 장막 아래에 머무를 때에는 모든 종류의 마야의 장애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마야의 그림자도 너희에게 드리워질 수 없다. 그 다음 5악은 너희의 적이 아니라, 너희의 하인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너희들은 비쉬누의 그림에서 어떻게 뱀이 침대가 되고, 그 뱀이 또한 어떻게 보호의 장막이 되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승리함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모습을 그린 것이냐? 그것은 너희들 모두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어떤 적을 정복하더라도 그 적은 너희의 하인이 된다. 너희들은 그런 승리하는 보석들이다. 가정의 어머니들이었던 너희 샹티들은 또한 샹티 군대의 샹티들이 되었다. 샹티들의 그림에서 라반의 피조물인 악마들은 신인들의 발 아래에 묘사되어 있다. 샹티들은 그들의 힘으로 악마들을 발 밑에서 부숴 버렸다. 샹티들은 결코 어떤 악덕의 산스카라도 일어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지식을 기부하는 참으로 위대한 기부자가 되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지각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지식의 대양의 바닷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너희들은 자기 자신이 대양으로부터 받은 끝없는 보물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양이 가득 차 있고, 끝이 없으며, 변함 없듯이, 마찬가지로 영혼들은 주인들, 끊임없이 무한한 보물들의 주인들이다. 위대한 기부자가 되어서 너희가 받은 보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들을 위해 사용하여라. 항상 신봉자 영혼들과 너희와 관계를 맺게 되는 평범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신봉에 대한 결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저 가없고 무력한 영혼들은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있다. 너희들은 그들이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것을 볼 때 자비를 느낀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자비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쉽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훌륭한 기부자가 되어 계속 메시지를 전하여 아무런 불평이 없게 해라. 이 불멸의 지식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 오늘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고, 그런 다음 한 달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뭔가를 하면 그것은 축적된다. 너희가 누구에게 봉사를 하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들은 틀림없이 너희가 말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봉사하며, 피로를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라. 결코 피로해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밥다다와 함께 축적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뭔가를 하면 행복의 형태로 그 실질적인 결실을 즉각 얻는다.

3.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유지해라, 그러면 봉사의 확장을 위한 자격요건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사원의 분위기가 먼 데서부터 모든 이를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의 향기가 풍기는 분위기의 특질이 먼 데서부터 영혼들을 끌어당길 만큼 매우 고결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기억의 힘으로 너희 자신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분위기도 역시 강력하게 만들어라. 모든 영혼이 그리로 이끌려 갈 정도로 봉사 장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게 해라. 봉사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역시 봉사할 수 있다. 각자가 “나는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라. 너희가 그러한 목적을 지닐 때 봉사의 확장을 위한 자격요건이 가시화할 것이다. 모든 이가 와야 하고, 그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일부는 직접 올 것인 반면 나머지는 배회하고 비틀대며 헤맨 후에야 이리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나는 살아있는 빛의 등잔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나방들이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오게 해라. 살아 있는 빛으로 너희가 앉아있으면 나방들은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앗차.

축 복: 신의 사랑과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다는 알로직한 행복과 도취감을 지속함으로써 모든 성취로 충만해져라.

변함없이 아버지와 결합된 상태에 머무는 자녀들은 사랑으로 “나의 바바”라 하며 신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 무한한 공여자는 너희를 모든 성취로 채워주고 너희는 세 세계 모두에 대해 권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너희는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든 다 성취했네, 더 이상은 성취할 것이 남아 있지 않네”라고 노래 부른다. 그런 영혼들은 21 생 동안을 보장하는 카드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찾았다는 알로직한 행복과 도취감을 지속해라.

슬로건: 편의시설에 영적인 노력의 기반을 두지 마라, 시설이 너희들의 영적 노력에 장애가 되게 하지 마라.

*** 음 샨티 OM SHANTI ***